동국대 건학위 4년, 전법·장학 기틀 세웠다

건학위 최고, 상임위 회의서
4주년 성과, 올해 계획 발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서울 · 경주 5758명 활동 중
'지미불' 장학금 324% 증가

자승 스님 원력 〈불교사전〉
결실 맺어… 봉정식 봉행돼
첨단 분야 정원 64명 증원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4월 29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4월 29일 교내 정각원에서 열린 〈불교사전〉 봉정식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이 자승 스님 영전에 〈불교사전〉을 봉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가 4월 29일로 출범 4주년을 맞았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천명했던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라는 기치 아래 출범했던 건학위원회는 명실상부한 학교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학생 전법과 장학제도에서 혁신적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4월 29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의 사업 현황 및 성과와 2025년 기관별 중점 추진 계획들이 공유됐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건학위원회의 추진 사업으로 동국대는 대학생 전법과 장학제도, 학생 취업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장학제도와 대학생 전법은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

2021년 11월 18일 포항 원법사의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5월 중 100회를 앞두고 있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간 2767명이 장학제도의 수혜를 받았다. 장학기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4년에는 17억 5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324%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불교동아리를 통한 캠퍼스 전법도 확실한 성과를 보여준 사업이다. 2024년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템플애플'의 창립을 시작으로 올해 4월 10일 외국인 유학생 불교동아리 '글로불동'까지 서울과 경주에 총 25개의 동아리가 창립됐다. 현재 서울캠퍼스에 3324명, WISE캠퍼스에 2294명, 듀이카(DUICA)에 140명 등 5758명의 학생이 불교동아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2년 시작된 교내 취업박람회 'JOB&FESTIVAL'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대학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로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실전 채용 프로세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2023년 69.7%라는 역대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업 성과들로 동국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 TOP10'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학부 학생 1인당 장학금(9위), 세입 대비 기부금(8위), 고교생 선호 대학(5위), 대학브랜드 파워지수(5위) 등 교육 여건과 평판도가 일신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의 성과는 신입생 증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국대는 2026년도 첨단분야 신입생 정원 배정에서 64명이 증원됐다. 이는 서울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증원으로 전국 2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의료인공지능공학과 등 신설로 인한 신입생까지 더하면 총 89명 증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자승 대종사의 원력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건학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제2건학'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묵묵히 그리고 단단히 걸어왔다"며 "이제 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교정체성을 강화하고 생활 속 신행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성화가 큰 결실을 맺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이제 우리 동국은 더 넓은 세상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대학, 중생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대학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불교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생 전법이 새로운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학위원회 4주년을 맞아 동국역경원이 1961년 초판 출간한 〈불교사전〉이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편찬·발간됐다. 이는 자승 스님의 '〈불교사전〉 현대화' 원력을 이은 것으로, 같은 날 정각원에서 봉정식이 봉행됐다.

이번 출간된 〈불교사전〉은 모두 1만9019개의 표제어로 구성됐다. 기존 초판본 〈불교사전〉에 있던 표제어와 관련 설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불자와 일반인도 쉽게 불교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문법에 맞게 문장을 손봤고, 60년간의 연구성과도 반영했다.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불교사전〉을 다시 출간하며 당시보다 훨씬 신선해지고 다채로워진 한국어를 적용하는 데 주력했다"며 "대작이 지닌 의의를 오늘날 되살리는 의미와 함께 그간 축적된 불교학 연구의 성과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제 7 회

천 태
사 진
공모전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주관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 운영위원회
후원 금강신문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불교천태종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사진예술로
승화하여 21세기 기록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 9월 17일~24일
전시 12월 3일~8일, 한국미술관
(서울시 인사동길12 대일빌딩 한국미술관2층)
입상자발표 10월 중 개별 통보

공모 개요

주 제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지역 자연 풍경, 사찰 및 불교 정신을 담은작품, 천태종 관련 사진 우대.
자 격	제한 없음
규 격	장별 3,000픽셀, 해상도 300dpi, 용량 10MB 이상 JPEG파일. 출품작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것으로 한함. 작품의 파일명은 반드시 <작가명-작품명.jpg>로 할 것. 규격 파일형식 엄수, 규격 파일형식 미달은 심사 제외.
출 품 수	1인 4점 이내. 타 공모전 출품 및 타인명 출품 심사 제외. (추후 인지 시에 수상 취소)
출품방법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 E메일로 접수.
출 품 료	없음.
접수기간	2025년 9월 17일 ~ 24일
접 수 처	Email : cheontaecmb2@kakao.com Tel: 02-723-1559

시상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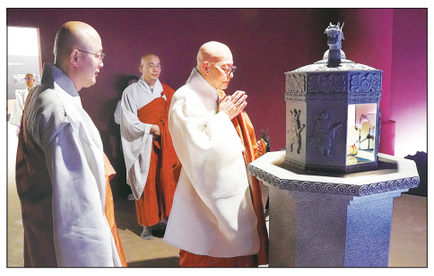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금 상	1명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은 상	1명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동 상	3명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
가 작	10명	상장 및 상금 각 30만 원
입 선	00명	상장 및 상품

*입상자에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입회 점수가 부여됩니다.

● DSLR, 드론(촬영허가서 첨부)으로 촬영한 작품만 심사(허가관련 위법 사항은 작가 책임).
●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사용권은 천태종에 있음.
● 작품의 초상권과 관련한 사항은 작가의 책임.
● 출품 후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 및 수신이 불가할 경우 주최 측에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 A.I 작품은 심사 제외. 창작적 의도로 보정을 한 경우 원본도 첨부(심사 참조용).
● 수상작과 동일작을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수상할 경우 수상 취소. 상금반납은 물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가 유보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의함.

진우 스님 "육바라밀 실천으로 업장 소멸"

4월 28일, 도선사 초하루 법회서
청담 대종사 전시서 사리 친견도
태원 스님, 산불 복구에 50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반세기 만에 나투신 청담 대종사 展'을 관람하고 청담 대종사의 법신 사리를 친견했다.

음력 4월 1일 초하루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를 찾아 법문하고 육바라밀과 가족 전법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8일 도선사 초하루 법회 법사로 나섰다. 법좌에 오른 진우 스님은 불자로서 행해야 할 여섯 가지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의 당위성과 실천을 설하며 부단한 정진으로 업장소멸을 할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여섯 가지 보살이 해야 할 행동인 육바라밀의 실천은 결국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진짜 복은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있음을 알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별을 넘어서기 위한 육바라밀 실천행을 강조하며 "자비행으로 복을 쌓으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다. 그러면 가정도 이웃도 평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선명상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화가 날 땐 5초만 멈출 것"을 제안한 스님은 "과거 지나간 것도, 현재 지나는 것도,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잡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쉘패스 선명상'으로 분별심을 멈추고 감정에 끄달리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법회에 앞서 진우 스님은 청담기념관에서 진행 중인 '반세기 만에 나투신 청담 대종사 展'에서 청담 대종사의 법신 사리를 친견했다. 임은호 기자

보광사, 고령산 산문 열다…낙성식 및 제막

故월운 대종사 원력 서린 불사
한국-태국간 친선우의 상징



파주 보광사(주지 혜성 스님)가 4월 27일 산문 일원에서 '보광사 산문 낙성식 및 기념 표지석·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한국과 태국 간 불교문화교류를 선도해 온 보광사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故 월운 대종사와 태국 왓포사원 솜텟 프라마하 티라찬 주지 스님의 우의와 축복의 결실로 마련됐다.

보광사 주지 혜성 스님은 산문 낙성 경과 보고를 통해 "보광사가 태국과의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국제적인 사찰로 거듭나게 된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일면 대종사는 치사로 "보광사가 더욱 발전하고 모든 불교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운 대종사도 "해탈문을 지나갈 적에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원인도 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심을 당부했다.

이번 산문 낙성을 있게 한 솜텟 프라마하 티라찬 스님은 "보광사 일주문은 조계종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스님이신 故월운 스님의 숭고한 정신과 깊은 유산을 기리기 위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따뜻한 우정과 깊은 영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낙성식에서는 교구발전 기금 전달식도 있었다. 혜성 스님은 교구장 호산 스님에게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